

## 11장 세계시장, 금융축적체제, 그리고 가상 실효적 잉여가치

(1교시)

### 세계시장과 금융적 축적체제 I

#### ▲ 맑스에게 있어서 신용과 화폐

-신용과 화폐의 문제: 맑스는 이 문제에 있어  $C(\text{상품})-M(\text{화폐})-C(\text{상품})$ 이라는 산업 자본의 형태와  $M-C-M$ 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상업자본의 형태를 논의

그런데 **금융자본**의 경우에는 C, 즉 **상품 단계를 생략**하면서 **화폐가 곧장 화폐를 낳는**, 이른바 돈을 놓고 돈을 먹는다는 **새로운 도식이 탄생**하게 됨.

맑스는 바로 이  $M \rightarrow M$ 의 **자본형태**가 자본주의 발전의 궁극적인 단계 즉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취하는 형태라고 예견함.(화폐 자체가 물신화 되어 있는 구조.)

※ 자본론 3권 <신용의 장> 참고

#### ▲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 1. 이윤율을 균등화하기 위한 매개

→ 시장에는 여러 생산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품은 각기 다른 이윤율 구성을 갖게 된다. 그것이 상품으로 교환되면서 균등화 된 이윤율을 창출하고, 균등화 된 이윤율에 입각한 평균이윤을 개별 자본에서 가져간다.

예> 고도화 된 기술을 갖고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서 더 많은 이윤을 갖게 된다.

**은행**은 이러한 개별기업들이 시장 속에서 생산에 장애를 받지 않고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끔 **신용을 행사**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신용위기를 극복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 개별기업의 상품이 시장에서 팔린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시장이 개별기업들에게 평균화 된 이윤률을 가져다주는 시간만큼의 여유를 제공해 준다.

##### 2. 유통비용절감

→  $C(\text{고정자본}) + V(\text{가변자본}) + S(\text{잉여가치}) = \text{상품의 총 가치}$ . (유통비용에 대한 계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유통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서는 절대적인 낭비.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노력이 전개.

**금융과 관련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화폐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 것** 즉, 신용을 매개로 해서 직접적으로 화폐가 들어가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

ex>화폐교환 없이 장부상의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간의 거래

바로 이러한 유통비용절감이라든가 평균이윤율의 실현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이 때 형성된 것이 **주식회사**

→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생산에 투자한 후 남은 이윤을 배당금으로 나누어주고, 일부의 배당금을 다시 투자. **신용**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사회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잉여자본을 생산적 자본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기업형태가 주식회사이다. 바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을 신용제도가 만들어준다.

예> 노동자들이 임금을 한 달동안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을 사회 전체의 노동자들에게 확장시켜보면 나누어 찾아가는 임금 역시 신용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돈을 모아서 은행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이윤중의 일부를 이자로서 지급한다.

**\* 신용은 임금까지도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 ▲ 자본의 사회화 과정으로서 주식회사의 도래를 예견한 맑스

맑스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의 사회화(결합자본, 사회자본의 형태)를 확인한다.

개별적인 다양한 자본들이 일종의 결합자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 자본은 개인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자본(바로 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하며, 이러한 자본의 기업은 개인기업에 대립하는 사회기업으로서 등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의 한계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것임. 이는 곧, 자본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러 주주들이 자본을 결합한 주식회사를 등장시킨다.

**즉, 자본이 개별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만을 착취한다는 방법론을 넘어서서, 한 사회속에 융축되고 결합된 자본이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함.**

※ **참고자료** - 맑스의 금융자본 이해에 관한 자본론의 여러 구절들.

##### (1) 가장 물신화된 자본형태

“이자 낚는 자본(M-M')에서 자본관계는 가장 피상적인 물신화된 형태에 도달한다.”(『자본론』 3권, 475쪽) “이자 낚는 자본에서 ... 자본은 자기의 순수한 물신형태인 M-M'을 주체로서, 판매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얻고 있다. 첫째로 자본이 끊임없이 화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도 여기에서는 화폐형태이며 자본 그것의 속성으로서 나타난다.”(『자본론』 3권, 478쪽)

##### (2) 자본축적의 질적 한계의 철폐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본축적에 하나의 질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한계는 총노동일, 생산력과 인구 --이것은 동시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일 수를 제한한다-- 의 그때그때의 발전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가치가 이자라는 무개념적인 형태로 파악된다면 그 한계는 다만 양적인 것이며 모든 공상이 가능하게 된다.”(『자본론』 3권, 485쪽)

##### (3) 은행자본의 이자원천

“은행자본은 한편에서는 화폐자본의 집중, 대부자의 집중을 상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차입자의 집중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윤은 자기가 대부할 때의 이자율보다도 낮게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자본론』 3권, 490쪽)

(4) 대부자본의 구성

“대부자본의 구성: 생산자나 상인의 준비금, 화폐자본가들이 위임한 대출금, 점차 소비되는 소득”(『자본론』 3권, 490).

(5) 이자율의 상승이 보여주는 것

“이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면 이것은 단순히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보다 더욱 빨리 증대하였기 때문일 뿐이다며 그리고 이것은 산업생산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생산이 보다 큰 규모로 신용의 바탕 위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자본론』 3권, 520쪽)

(6) 화폐에 대한 수요의 성격

“화폐, 그것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가치를 상품이나 채권의 형태로부터 화폐의 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소원에 불과하다.”(『자본론』 3권, 525쪽)

(2교시)

## ▲ 주식회사와 독점자본

맑스는 금융자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과 화폐**라는 용어로 **금융자본**에 대한 생각을 드러냄.

맑스의 시대에는 거대 결합기업체가 없었으며, 주식회사도 미미미한 형태로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카르텔, 트러스트와 같은 결합기업체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세계자본주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때에 **독점자본들의 해외수출**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 ▲ 레닌-힐퍼딩의 금융자본에 관한 견해

### ① 힐퍼딩

저서 『금융자본』을 통해 금융자본문제를 은행과 기업의 관계에서 분석.

→ 은행이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함. 은행 자체가 생산자본의 소유주가 되고 기업가는 대리경영자이다.

즉, **금융자본**이란 소유권은 은행에 있고 기업은 사용만 하는 생산구조에 의거한다.

### ※참고자료 『금융자본』 발췌

“산업자본 중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산업자본가가 소유하지 않은 자본의 비율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산업자본가는 오직 은행의 매개를 통해서만 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자본의 소유주를 대표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은행은 자기 자본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을 산업에 투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은행은 점점 더 산업자본가로 전환된다. 이러한 은행자본, 즉 사실상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형태의 자본을 나는 금융자본이라 부른다.(중략) 금융자본이란 은행이 통제하고 산업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을 말한다.”

### ② 레닌 - 힐퍼딩 사유의 계승과 비판

힐퍼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의 **독점**을 강조하면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창출

### **독점 자본주의**

은행과 기업이 결합되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결합됨(힐퍼딩) → 강력한 자본의 형태로 거듭나면서 국가를 이용 → 금융자본의 해외 수출 → 식민지 창출

###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의 잉여가치가 과포화에 이르러 독점자본주의로 변화. 국가를 앞세운 방식으로 외부를 흡수하면서 자본이 확장된다.

## ※참고자료 『제국주의론』 발췌

“(힐퍼딩의 정의는) 한 가지 극히 중요한 사실, 즉 독점에 달했거나 달할 정도로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중략) 생산의 집적, 이로부터 생겨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합병 혹은 유착,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사이며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의 내용이다.”

→ 국가가 이끄는 **금융자본의 대외적 진출**이라는 **경향성을 규명**해 냄.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도식을 이끌어내었음.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주의는 외부에 대한 침략을 통해 외부를 먹고사는 괴물이다.”

## ▲ 들뢰즈의 『금융자본론』

화폐의 두 가지 기능

→ 척도의 기능(지불수단), 신용기능

특히 신용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은 미래에 이 사람이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돈을 댄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화폐의 척도기능은 점점 더 하락하며, 신용기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여기서 들뢰즈는 **금융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 국가자본이 매개가 되어 산업자본을 가동시키는 방법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들이 소비할 수 없는 상황 즉 잉여가치 과포화의 상태 →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임금으로 지불 → 유효소비 → 상품의 생산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주장**하면서 금융 자본가들의 안락사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정부의 시장 통제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금리가 하락한다고 본 케인즈 주의가 무너지면서 금융자본의 시대가 왔다. 이것의 실체는 **통화주의** 시대이다.

